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ZOOM-IN

기획대담 | 1인가구 500만 시대
나 혼자 건강하게 살려면?

ISSUE & VIEW

1인가구 25년 만에 3배 급증
한국의 가족형태가 변하고 있다

대전지역 1인가구를 위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한 때

2016
Vol.24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옛 충남도청사 야간 경관조명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 행 인 | 대전광역시장
발 행 일 | 2016년 12월 31일
편집위원 | 주혜진 · 허용주 · 김민영 · 원구환 편집 | 이유라
발 행 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디자인 · 제작 | 디자인스튜디오 203 대전

CONTENTS

ZOOM-IN

- 02 1인가구 500만 시대
나 혼자 건강하게 살려면?



ISSUE & VIEW

- 06 1인가구 25년 만에 3배 급증
한국의 가족형태가 변하고 있다
- 08 대전지역 1인가구를 위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한 때



GENDER! TALK & PLAY

- 10 내가 응원하는 사회는
- 11 양육도 맞들면 낫다

이야기 하나

- 12 당당한 여성의 새로운 시작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 14 미혼모의 쉼터
대전자모원
- 16 얼굴 있는 먹거리
품앗이마을



이야기 둘

- 18 성평등 도시 대전
‘두런두런’ 이런 일이
- 20 성 주류화 제도, 시민이 점검해봤어요
- 22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NEWS
- 23 기초자치단체 활동 엿보기

이야기 셋

- 26 여성계 활동 이모 저모
- 29 대전 공유네트워크
무엇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
- 30 회원제 독서클럽 · 작은책방
‘가치읽자 | 유어왓츄리드 You Are What You Read’
사유의 공간에서 공유와의 접점 찾기

함께하는 생각

- 32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영화와 역사 속 여성 과학자들
- 35 건강 미인의 완성은 자세
- 36 김영란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우야, 놀자

- 38 건조한 겨울, 보습제 끝판왕
코코넛 만능크림
- 40 대전문화재단 이춘아 대표이사
“대중화된 생활형 문화예술의 시대 열고 싶어”
- 42 아릿한 역사가 숨쉬는 곳
소제동 철도관사촌 ‘술랑시울길’을 걷다



기획대담

1인가구 500만 시대

나 혼자 건강하게 살려면?

1인가구 500만 시대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대전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1인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교과서에서 흔히 보던 아버지, 어머니, 자녀 두 명으로 구성된 4인가구는 이제 1인, 2인, 3인 가구보다 더 드물게 됐고, 가파르게 늘어난 ‘나 홀로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거, 안전을 넘어 1인가구 건강에 대한 정책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난 10월 28일 1인가구 건강에 대해 듣고자 도룡동의 한 카페에 자리를 마련했다.



주혜진
대전여성가족
정책센터장



구기희
대전중구
보건소장



박태구
충도일보
기자



황선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현지수
대전페미액션

주혜진 |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실제 체감하는 증가 현상, 사회적 위험, 특히 신체적·정서적 건강 실태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나 소비문화 등에서 변화를 느끼고, 체감하시나요?

황선재 | 저는 9월 대전으로 오게 되면서 비자발적 1인가구가 되었는데요. 한 달 만에 기관지염에 걸려서 1인가구의 낮은 건강수준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산증인이 아닌가 싶네요(웃음). 1인가구 현상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느끼는 게 더 큰 거 같아요.

박태구 | 식당에 가보면 혼자 밥 먹는 일명 ‘혼밥’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또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것도 그렇고요.

구기희 | 제가 공직에 들어온지 14년 정도 되었는데요. 직장 내에서도 점점 1인가구인 직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현지수 | 저는 실제 1인가구로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때가 있어요. 배달음식을 시킬 때 2만원 이상만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단품도 배달된다는 점과 식당에 1인용 불판이 있는 걸 봤을 때였죠(웃음).

주 | 직·간접적으로 1인가구 증가를 느끼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1인가구가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황 | 1인가구 증가 원인은 세대하고 성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고령층의 1인가구 증가 원인은 가장 크게 사별을 꼽을 수 있고요. 특히,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죠. 청년은 비혼으로 인한 1인가구가 많고, 대부분 남성이죠. 여성은 결혼 전까지 부모와 거주하는 경향이 높아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의외로 중요한 집단인데 경시되고 있는 집



단이 중장년층 남성이죠. 중장년층은 비혼, 이혼, 주말부부나 기러기부부 등 별거로 인한 1인가구가 많은 것 같아요.

박 | 0~30대의 경우 경제적 이유도 크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권 박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60대 이후 고령층에서 1인가구가 많은 이유는 사별 외에도 결혼 후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회적 문화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현 |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층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일과 학업을 위해서 독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구 |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명퇴나 이직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찾다보니 비자발적 1인가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주 | 그렇다면 요즘 1인가구가 갖는 위험요인이나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 | 저는 실제 20대 여성 1인가구로 안전하지 못한 주거환경이 가장 힘들어요. 혼자 귀가할 때의 두려움, 배달원이 혼자 사는 사실을 알고 위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 등이 있거든요. 또 청년층 1인가구는 시간제 일자리나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
1인가구 건강은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경제적, 사회적 측면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해요.
♀♀

박 | 1인가구는 건강문제도 크죠. 고령층은 몸이 아파도 남들이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해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대상자를 직접 찾아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죠.

구 | 의외로 주변의 젊은 청년들이나 중장년층들도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황 | 0대 초반까지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다인가구와의 격차가 심하지 않죠. 40대 이후부터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다가 60대 이상부터는 다시 낮은 수준에서 차이가 좁아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장년층에서 급격히 벌어지는 건강격차죠.

구 | 청년층에서 음주율, 흡연율이 높은데요, 이 습관이 중장년층까지 이어지면서 건강격차가 많이 벌어지죠. 이런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질환은 10년, 2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중장년층에서 건강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것은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영양 불균형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이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낮게 만들죠.

현 | 주변에 중장년층 남성분들을 보면 보건소나 병원을 잘 안가더라고요.

구 | 보건소 사업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하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죠.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여서 방문이 힘들기도 하지만 신체적, 정서적 이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취약하다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중장년층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주 | 1인가구의 건강을 크게 몸 건강, 마음 건강으로 나눠 봤을 때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 | 주변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로 부터 외로움 때가 가장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살 때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한 점도 있었지만(웃음).

구 | 맞아요. 정서적 고갈 상태인 우울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죠. 우울증이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요. 특히, 고령층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1인가구들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도 가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우울증 자체가 신체활동을 위축시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건강까지 해치기도 해요.



황 | 우울증이 정서적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신체적 문제로까지 연결되는군요.

박 | 요즘 기사를 다루다보면 고독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고립되거나,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노인들에게 일어났었다면 최근에는 중장년층에서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슈예요. 심리적 고립이 심한 중장년층이 늘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현 | 1인가구의 우울증은 전 세대를 거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생활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청년이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구 | 중장년층이나 고령층보다 청년층이 우울증에서 자살생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즉, 청년층은 우울증의 빈도는 낮는데 우울증이 자살까지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주 | 정서적 건강문제인 우울증 외에 신체적 건강 문제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 | 제 경우만 해도 요리를 해서 먹는 일은 거의 없어요. 식재료가 다인가구 위주로 판매되다 보니 버리는 재료가 많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죠. 배달음식이나 냉동식품을 위주로 끼니를 때워요.

구 |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 보면 영양 불균형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다가구보다 편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공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협한 식습관과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졌기도 하죠.

황 | 1인가구는 가사를 분담하거나 대신해줄 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상당히 오래가요. 지금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요(웃음).

박 | 고령층의 약 오남용도 문제예요. 건강상의 문제를 모두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

죠. 이게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지 모르고 만병통치약처럼 쓰시더라고요.

주 |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환, 정서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 등 다양한 1인가구 건강문제를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현재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1인가구 건강 관련 지원에 대해 들어볼까 합니다.

구 |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1인가구만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이긴 더욱 어렵고요. 예를 들어, 5~6년 전만 해도 독거노인들을 위한 방문간호사업이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이유로 많이 축소됐죠.

박 | 그나마 시행하는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노인과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청년층, 중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미비하더라고요. 또 일부 정책의 경우 현실성이 낮아 효과가 없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아쉬워요. 독거노인과 대학생 주거 공유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현 |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위계서열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지만 요즘 사례로 나오는 공동부엌을 만들어서 함께 요리하기, 방명록을 만들어서 서로 살펴보기, 반찬 만들어서 공유하기 등 따로 살지만 네트워크 공간을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황 | 1인가구 건강은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경제적, 사회적 측면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정서적 고립을 경제 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처방적 접근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현 | 여기서 직업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고 원만한 사회적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죠.

구 | 앞에서 박 기자님이 말하셨던 독거노인의 약 오남용 사례를 실제로 많이 봐요. 처방하는 과정



에서 중복투약을 금지하고, 사례관리사가 지도를 하지만 어렵죠. 그래서 얼마 전 저희 보건소에서 약사회와 협약을 해서 복약지도를 하는 방문약손사업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관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보다 타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 |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 |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건강을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개방하지 않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수혜를 받죠. 중장년층 남성에 해당하는 저로서 이 계층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네요(웃음).

박 | 1인가구에 대한 실태파악 및 안전, 주거, 건강 등 분야별 후속연구, 세대별 수요조사가 실시되어야 해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정책을 보완하거나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황 | 맞아요. 세대와 성별에 따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고민해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 | 공감해요. 현재는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1인가구의 생각을 들어보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앞에서 말했던 1인가구를 위한 네트워크 공간 마련이나 시설 개선은 개인이 주도하는 것보다 공공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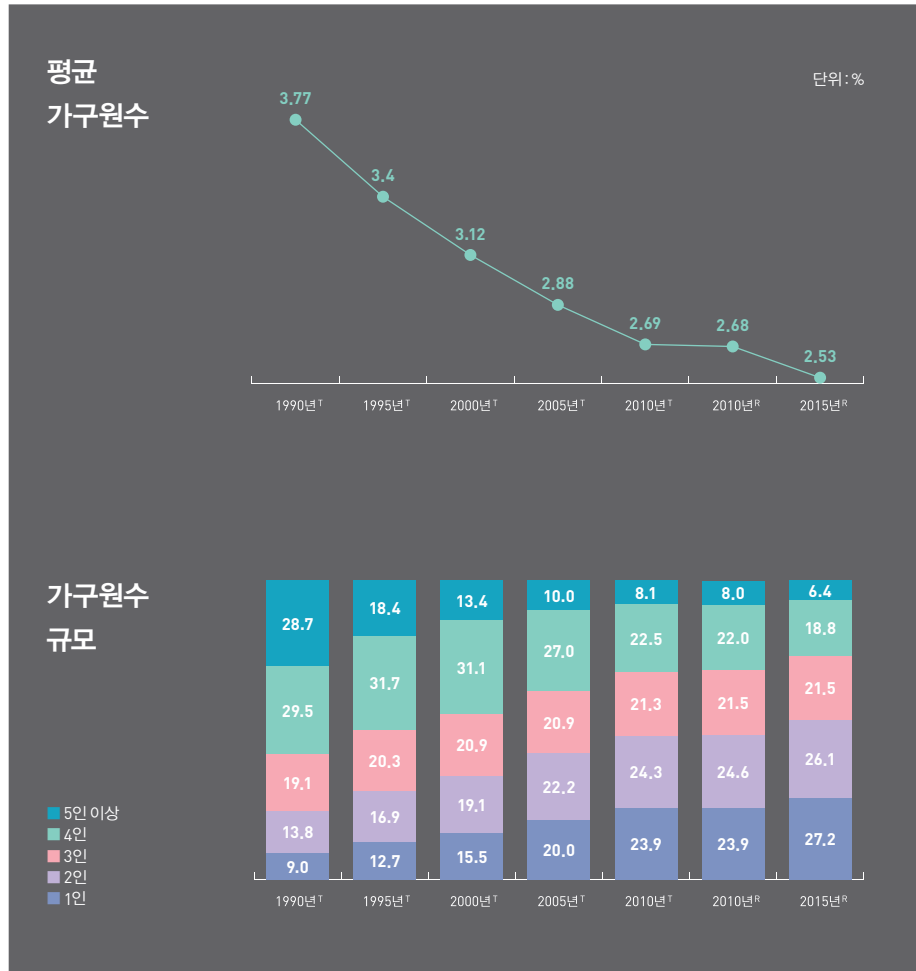
주 | 이 자리를 통해 1인가구의 현실과 실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듣게 되고 연구자로서 정책 발굴의 함의도 얻게 된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가구 25년 만에 3배 급증

한국의 가족형태가 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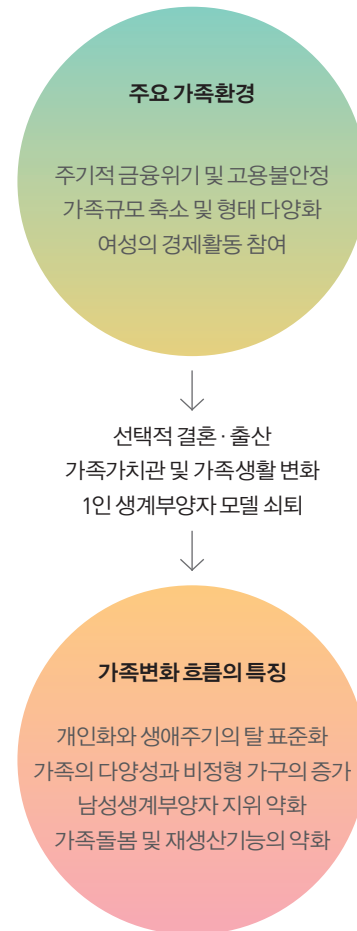
글 · 김영란_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가족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가구원수의 축소이다. 2015년 한국 가족의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으로 1990년 3.77명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가구원수 규모별 가구를 보면 1인가구 27.2%, 2인가구 26.1%, 3인가구 21.5%, 4인가구 18.8%로 1인가구가 주된 가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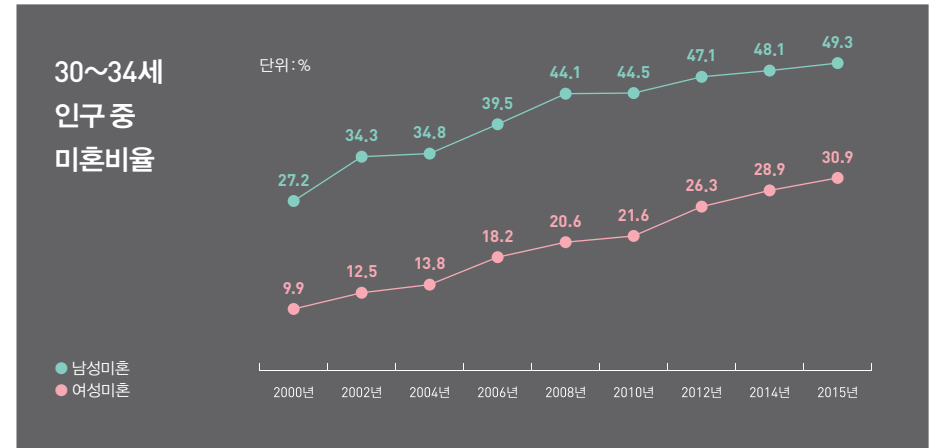


통계청(2016. 9. 7.),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결과 보도자료.

한국 가족변화의 주요 특징



장혜경 외(2014), 가족의 미래와여성가족정책전망(IV), p2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평균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 규모

☑ 2010년²과 2015년²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 결과이며 2005년¹ 이전자료는 전통적 현조조사방식의 집계자료임.

☑ 2010년은 전통적 방식과 등록센서스 방식을 모두 표기하였으며 전통적 방식은 2010년¹, 등록센서스 방식은 2010년²로 표시하였음.

참고자료

장혜경·김영란·김소영·이아름·안경희·류연규·이한나(2014),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5년 이후 평균 가구원수는 3인 미만으로 감소하고, 2010년 이후 3인 이하 가구와 3인 이상 인 가구의 비율이 역전했다. 이러한 가족의 축소는 한국인의 가족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가시화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가장 먼저 결혼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결혼을 필수로 인식하는 태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 결과 초혼연령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1980년 남성 26.4세, 여성 23.2세이던 초혼연령은 2015년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남녀 모두 30세를 넘어섰다. 만혼의 영향으로 30~34세 인구 중 미혼은 2015년 남성 49.3%, 여성 30.9%로 급격하게 늘었다.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혼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비율은 1998년 73.5%에

서 2014년 56.8%로 줄어들었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태도 역시 1998년 60.3%에서 2014년 44.4%로 줄었다. 이를 보면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결혼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가치의 하락은 경제적으로 저성장기조에 들어선 한국사회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세대의 실업 등 고용불안정 문제와 계층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적 요인은 청년세대의 가족 형성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심화는 1인생계부양자에서 2인생계부양자로 전환되어야 할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여성이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 내

성별 불평등 문제는 2인생계부양자 가족의 일·가정양립 어려움을 초래하고 자녀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즉, 한국 가족 변화에서 확인되는 가족의 축소, 결혼 기피는 바로 개인에게 가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서 결혼과 출산이 포기되거나 연기 되는 등 가족관련 생애주기의 탈 표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부양 및 돌봄에 대해 가족이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기조의 지속 및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장혜경 외(2014)는 한국 가족의 미래 전망에서 최근 한국 가족 변화에 대해 위 그림과 같이 정리

한 바 있다. 금융위기 및 고용불안정, 가족규모 축소 및 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환경에 의해 선택적 결혼, 출산 등 가족가치관과 가족생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 가족 변화의 특징은 '개인화와 생애주기의 탈 표준화', '가족의 다양성과 비정형가구의 증가', '남성생계부양자의 지위 약화', '가족 돌봄 및 재생산 기능의 약화' 등으로 요약됐다. 이에 대한 대응정책으로는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의 실현, 돌봄의 사회화, 변화된 가족 현실에 조응하는 법적 재정비 등이 제안됐다.

2016년 새로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면 이러한 가족변화를 반영한 정책들이 수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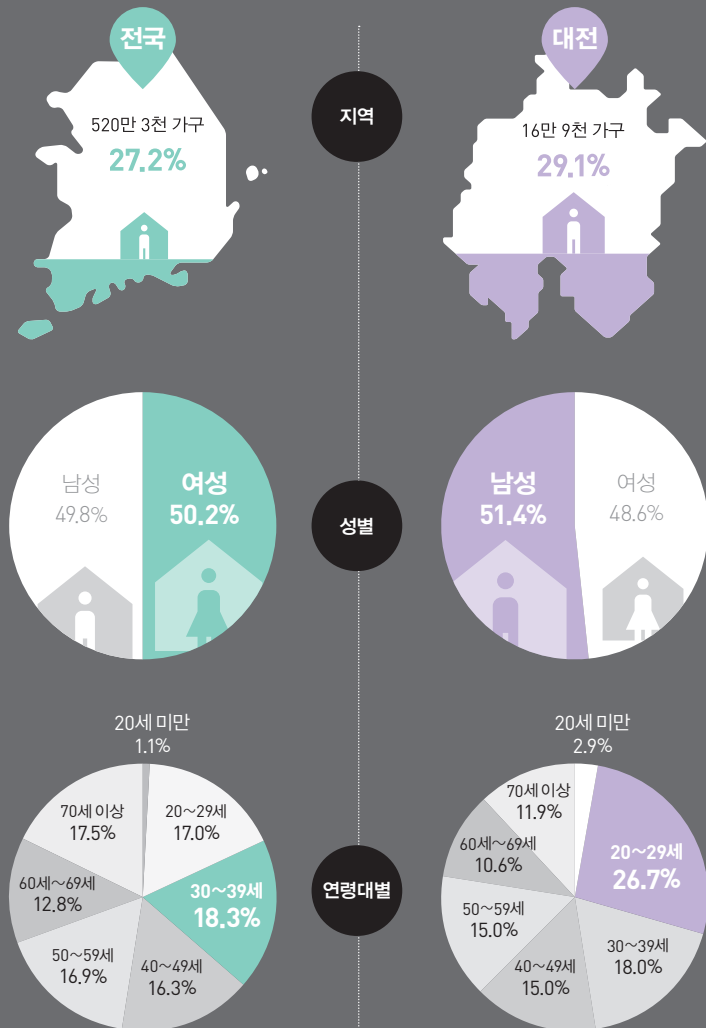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육아 등 구조·문화 대책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역시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변화 대응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과 돌봄에 있어서 가족책임으로 되어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인단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돌봄 부담 때문에 가족을 형성하지 않으려는 현상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가 상호 부양 및 돌봄 의무로 인해 멀어지는 것은 없어야 할 것이다. **W**

대전지역 1인가구를 위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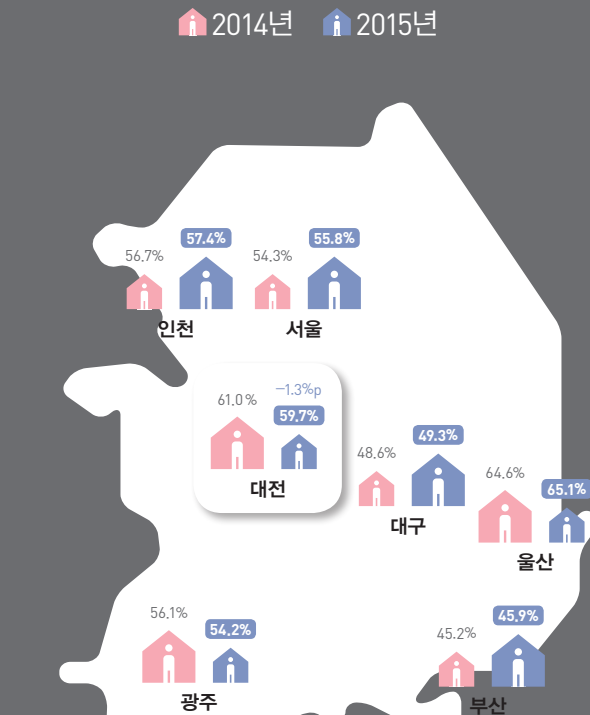
글 · 주혜진_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보다 다양한 주제를 초점으로 한
1인가구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15 전국 및 대전 1인 가구 성별·연령대별 현황



7개 특·광역시 1인 가구 고용률



참고자료

주혜진·손정혁(2014), 『대전지역 여성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분석』, 대전발전연구원.

주혜진(2016), 『대전시 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Ⅱ - 인지지표의 활용과 측정』, 대전세종연구원.

통계청(2016. 9. 7.),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

통계청(2016. 6. 29.), 『2015년 하반기 지역 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올 해 통계청에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1인가구가 대세'가 되었다는 점에 놀랐다. 전체 가구의 27.2%가 1인가구여서 2010년 다수였던 2인 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대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대전지역 1인가구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29.1%다.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주민등록상 대전지역 1인가구는 19만 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대전의 1인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보다 적은데(48.6%), 전반적으로 1인가구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전지역 1인가구는 20대의 비중(26.7%)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전국적으로 30대(18.3%)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점과 다르다. 70세 이상 1인가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도 대전지역 1인가구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추정할 수 있는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 1인가구의 고용률(59.7%)은 7개 특·광역시 중 울산광역시(65.1%) 다음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이라는 하지만, 부산과 대구, 인천 등이 전년도에 비해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고용률 하락이 대전지역 1인가구의 삶의 질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인구총조사 전수자료를 바탕으로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주혜진·손정혁, 2014)에 따르면, 중구와 서구에 여성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서구 갈마, 월평동을 중심으로 젊은 임금노동 여성들이, 중구 선화동 인근에는 중년층 서비스직 종사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소득 노령 1인가구가 많은 동구 홍도동 및 판암동 일대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1인가구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한 유성구 온천동 등은 안전 및 주거비 부담이 정책적 화두다.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보다 다양한 주제를 초점으로 한 1인가구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에게는 1인가구라는 점 자체가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주혜진, 2016), 건강과 일자리, 정서적 지원 등 광범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W**

내가 응원하는 사회는

글 · 이영순_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짧았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지난 4월의 그 아름답던 연록빛 산하는 용하게 폭염을 견디더니 이제는 남은 엽록소마저 다 우리에게 주고 자연 속으로 돌아갔다. 그 모습이 오늘도 정확히 오후 4시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노부부를 닮았다. 보기에 70대 후반쯤 됨직한 노부부는 결코 나란히 걷는 법이 없다. 늘 아내가 두어 걸음 뒷전에서 열심히 남편을 쫓는다. 아니 따른다는 말이 더 알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결코 남편보다 앞서 걷지 않는 부인의 걸음이기 때문이다. 저 걸음은 필시 잠시 잠깐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습관처럼 굳어 진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스스로 그렇게 두어 걸음

뒤를 자처했을까? 왜 그럴까?

문득 빗바랜 흑백사진 속 한 장면이 떠오른다. 지금도 낡은 앨범 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진은 모두 돌아가신 필자의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양복을 단정히 입은 아버지는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 계신데 한복 차림의 어머니는 역시 반걸음 뒤에 다소곳하다 못해 약간은 구부린 듯한 자세로 수줍게 웃고 있다. 등 뒤로는 흐드러진 벚꽃이 한창인데 조금은 어색하기까지 한 그 사진 속의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산책을 하신다면 아마도 저 노부부의 모습이라. 물론 지금의 필자, 아니 우리 부부는(참고로 우리 부부는 60년대) 그렇게 길을 걷지 않는

다. 오히려 성질 급한 필자의 뒤를 조용한 성격의 남편이 천천히 뒤따르기도 하니까.

필자가 20대 후반일 때 한국의 대학에 처음으로 여성학이라는 과목이 등장했다. 이름조차 생소한 여성학 과목의 교수가 남편성과 자기 성을 함께 붙인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필자는 그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교수님의 강의는 여성이 겪어온, 그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성차별의 역사와 사례에 대한 것이었고 그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필자도 모르게 어떤 사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한 학기를 보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성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까?

군에 간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군복무 기간으로 인해 아들이 겪는 취업상 불이익에 불만을 털어 놓는가 하면 취업한 딸을 가진 어머니들은 여성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유리천장을 성토했으며 열을 올린다. 필자는 아들만 둘이어서 한 쪽의 고민만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갓 결혼한 며느리가 직장 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를 내어 놓을 때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무엇일까?’, ‘그것이 존재하기나 한가?’하고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입장에서 이기주의적인 해답을 모색하는 한 그렇다. 조금 넓혀서 남성, 혹은 여성의 집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각해도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듯하다.

필자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한발씩 물러서서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며 살피라고 권하고 싶다. 권위나 체면, 이기적인 편익을 먼저 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특기나 재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존중해 준다면 그곳이 가정이든 사회든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남자가 집안일을 살피고 여자가 사회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하는 것을 편협하는 사회에서는 해답이 없다. 긴 인생길 살아가면서 부부 간에 그리고 남녀 간에 서로에게 응원자로 서서 양보하고 격려하는 것만이 해답임을 확인해 본다. **W**

양육도 맞들면 낫다

글 · 전경하_대전시 여성친화 서포터즈단



필자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중반의 주부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그 시절 귀하게 먹었던 햄버거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하고 싶은 것이 많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열정이 넘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꿈 많은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 대학에 입학 후 원하는 직장에 취업도 하고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이후에 임신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를 맡아줄 곳이 마땅하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 줄 상황이 되지 않았고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휴직기간이 끝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상황이었다. 필자는 이때 어떤 것이 아이를 위해 좋을까 고민했고 아이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다. 그렇게 좋아하던 일도 그만두면서 말이다.

그때보다 지금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자는 결혼 후에도 자기계발을 하며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자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굴레에서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생각해 보니 씁쓸하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따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친구와 수다를 떨며 그때 꿈꿨던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름에 우울해지기도 한다.

꿈 많고 열정이 넘치는 여고생 시절을 생각하면서 필자는 스스로 할 수 있다며 다독였고, 자기계발을 위해 강좌도 듣고 자격증도 취득을 했다. 하지만 육아로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 일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하늘의 별따기만큼.

요즘 결혼은 하지만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가 많다고 한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족의 몫이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각자도생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출산과 양육이 비단 어느 가족의 한 여성과 한 남성의 문제일까?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도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절실히 공감했던 말이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좋은 속담들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 그런데 온 지역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면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분명 출산·육아정책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다만 이것이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있을 뿐. 우리는 너무 가족에게만 ‘육아의 짐’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쯤에는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어있기를 꿈꿔본다. **W**

당당한 여성의 새로운 시작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취업난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되고 대다수 여성들의 (재)취업 장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간다. 취업의지는 있지만 자기계발이나 구직방법을 몰라 막막했다면 지역 내 취업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대전지역에는 고학력 여성들이 많고 비취업 여성인구도 많다. 따라서 특정 분야와 관련해서 여성 취업을 돕는 전문기관을 이용하면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얻을 수 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대전지역 특성에 맞게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대전배재대 ICT융합새일센터에서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보자.

배재대ICT새일센터는 ICT 전문인력 양성 및 개발을 통해 교육 및 취업을 윈스톱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여성취업전문기관이다. 지난 2015년 5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아 배재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제성장과 여성경제활동 증가의 상호작용 및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체계성으로 새롭게 접근한 지원센터이다.

대전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고학력 여성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에서는 우수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30 세대의 젊은 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 등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기반 한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직업상담과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및 훈련,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취업설계사는 양질의 기업체를 발굴해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취업 종합선물세트라고 볼 수 있다. 3종 심리검사(적성검사, 다중지능검사, 직업선호도검사) 실시, 일대일 맞춤형 직업상담과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동행면접, 멘토링이 대표적인 사업이며, 실무집중관리를 위해 현장실습 기회 제공, 취업동아리 운영, ICT기업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경력단절 여성인력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함으로써 지속적인 경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며, 우수 자원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대전지역 기업 경쟁력 상승을 기대한다. 또한 대전지역 결혼이민자 여성 취업 장려를 통한 가정-사회생활 정착을 마련하고,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우수 인력 자원 인프라 구성에 힘쓰고자 한다. 김정현 센터장은 “일하는 여성과 기업이 상생해 윈-윈(win-win)하는 대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1로 11-3
배재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C203호
전화 | 042-520-5087
팩스 | 070-8240-7766
이메일 | ictsaeil@pcu.ac.kr
홈페이지 | ictsaeil.pcu.ac.kr

PROGRAM 01

직업교육훈련

고학력 청년층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ICT 융합 전문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본교 중앙도서관 출입 및 자료 대출, 실습실과 도구 활용을 적극 지원하며, 동아리 활동을 위해 컴퓨터실을 개방해주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만 45세 미만 여성이면 서류와 면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훈련비가 없지만 교육생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 예치금을 받는다. 예치금은 교육을 수료하면 50% 환급하고 수료 후 6개월 내에 취업할 경우 100% 환급해준다. 또한 매월 80% 이상 교육에 참여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한다.

2016년 운영 직업교육훈련 과정

3D캐드실무자, 자바프로그래밍전문가, ICT융합전기기술훈련과정, 전기관리사, 웹&앱디자인전문가, 웹&앱프로그래밍개발전문가, 빅데이터정보관리사

2017년 운영 예정 직업교육훈련 과정

전자정부프레임워크과정(자바기반), 데이터수집기술과정(자바기반), 안드로이드앱 프로그래밍과정(자바기반), IOT 시제품 제작 과정



웹&앱디자인 전문가 과정



3D캐드 디자인 시제품

PROGRAM 02

집단상담프로그램 잡(Job)아라! 취업팡!

자신을 이해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 원하는 분야를 찾아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용은 MBTI 등 성격검사를 통한 나의 마음 이해하기, 직업스트레스검사를 통해 나의 스타일 발견하기,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취업 로드맵 설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및 클리닉, 모의면접이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회 프로그램으로 하루 4시간씩 진행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 후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취업연계, 전담 직업상담사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PROGRAM 03

기업지원 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

기업체에서 인턴(3개월)으로 일하면서 직장과 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는 인턴ships을 통한 성공적인 취업 지원을, 참여업체에게는 확실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환경개선)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 개선을 실시한다.

기업특강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 정보보안, 유연근무 등 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를 지원한다.

PROGRAM 04

찾아가는 새일센터



취업정보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해 여성의왕래가 많은 장소에 취업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다.

PROGRAM 05

미니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ICT융합분야 맞춤형 채용의 장을 마련하고 현장 면접을 실시해 구직자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역량 있는 여성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PROGRAM 06

여성친화문화조성

경제적 자립과 자기발전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 근로환경 개선 MOU 및 여성친화일촌협약을 체결한다. **W**



미혼모의 쉼터

대전자모원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대전자모원은 지난해 증축공사로 대지면적 1409.4㎡, 연면적 958.1㎡ 규모로 확장, 수용인원이 기존 14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다. 시설의 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생활실(4실)이 있고, 2층에는 생활실(11실)과 독서실 및 컴퓨터실, 3층에는 생활실(2실), 4층에는 기계실이 위치해 있다.

대전자모원은 출산 전 산모가 입소할 수 있는 대전 유일의 미혼모자기본생활형 시설로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든 산모와 태아 모두 '온전한 생명'으로서 존중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그리스도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신 및 출산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들에게 숙식 해결 및 의료지원, 상담, 교육, 산후조리, 여가활동,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혼모의 안정적인 출산과 태어난 아기의 장래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도모하고자 한다.

올해로 설립 25주년을 맞은 대전자모원은 1991년 11월 탄방동에서 상담실로 시작해 1995년 12월 미혼모 시설을 개원했고, 1997년 7월 현재의 위치(대덕구 상서동)로 이전 후 2006년 3월 미혼모자시설로 정식 인가를 받아 정원 9명의 시설이 됐다. 2013년 12월 정원 14명으로 증원 후 2015년 7월 한부모

대전자모원은 긴 인생의 여로에서 잠시 길을 잃고 헤메는 분들이 쉬었다가 가는 미혼모들의 쉼터입니다. 지친 나라를 접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후원안내

· 물품후원 | 생필품 및 아기용품(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의류 등), 여성의류 등
· 후원금 | 농협 453121-55-004153 / 대전자모원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전화 | 042-934-6934, 042-935-6934

이메일 | tjamo@hanmail.net

홈페이지 | djamo.or.kr

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인한 전국적인 미혼모 자시설 축소로 대전에서 유일한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이 되어 정원 증가 및 시설 증축이 이뤄졌다. 더 많은 미혼모의 모성을 보호하고 입양을 권유받지 않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전자모원 증축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제20조 제4항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 제1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4.12.], [시행일 2015.7.1]

대전자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미혼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의료지원, 사회심리적 재활을 위한 상담치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퇴소 후 미혼모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모에 대한 양육지원, 직업교육, 교양교육, 사례관리 등을 통해 미혼모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①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전진료, 산후진료 및 아기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②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의 '사회심리지원사업', ③ 인권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경제교육, 육아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소양교육 관련 '교육지원사업', ④ 학력취득(점정고시), 직업체험 및 자격증 취득교육(천연비누·천연화장품만들기, 네일아트, 바리스타, 정리수납), 취업준

비교육(이미지메이킹)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사업', ⑤ 태교·육아일기 만들기, 켈트공예, 캘리그라피, 요가, 백일잔치 등 취미, 운동, 여가선용을 위한 '여가활동지원사업', ⑥ 퇴소 후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양육모를 돕기 위한 물품지원 및 퇴소양육모 자조모임 등 '퇴소양육모지원사업'이 있다. 또한 기관 및 병원과 협약·연계·후원·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입소 대상은 미혼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숙식보호 및 의료, 상담 지원이 필요한 여성으로 입소절차로는 상담이 이루어진 후 입소가 결정된다. 입소 시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염성 건강진단서 1부와 신분증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입소할 수 있으며 입소기간은 입소 후 1년으로 필요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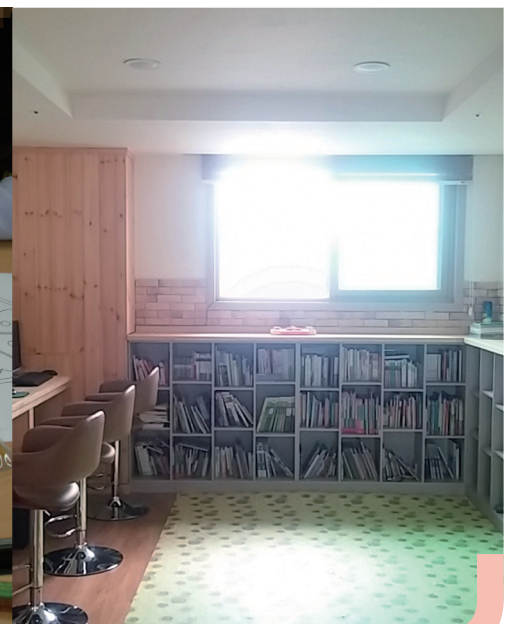
대전자모원 전경

육아일기 프로그램

생활실

심리치료 프로그램

독서실 및 컴퓨터실



얼굴 있는 먹거리 품앗이마을

‘얼굴 있는 먹거리’라는 말은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에서
로컬푸드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가깝고 안전하고 관계있는 먹거리
로컬푸드. 이를 통한 유통 플랫폼 구축
및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품앗이마을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
로써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안전하
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 환경보호 효과
를 내는 것이 로컬푸드다. 현대사회는 대량생
산-대량소비-대량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는
없어진지 오래다. 로컬푸드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생산, 유통, 소비 간에 신뢰를 복원한다.
생산지 탐방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
나고 농산물마다 어느 동네 누가 생산한 것인
지와 그 생산자의 스토리까지 알 수 있다. “이
오이는 유성구 구암동에 사는 김**씨가 오늘
아침에 재배한 것이구나, 김**씨는 대학을 졸
업하고 농촌으로 들어가 아버지 농사를 이어
받아 일하는 분이지.” 반대로 생산자는 “이 오
이는 지난 여름에 우리 농장에 채취 왔던 젊



은 아줌마 박**씨 따님이 먹겠지. 반석지구 3
단지에 산다고 했는데.” 이런 신뢰관계는 안전
한 농산물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유기농’, ‘무
농약’ 등 이름으로 인증되는 친환경농산물인
증제 이외에도 건강 먹거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가 기초되어야 한다. 품앗이마을의 주
된 사업 지역인 유성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없
는 농산물 자체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로컬푸드
안전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짝아진
유통단계로 농산물의 가격은 내려가고 신선
함은 유지된다.

최근 로컬푸드는 ‘가까운 먹거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먹거리 체계를 새롭게 혁신하는
‘푸드플랜’을 세우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다. 생
산-유통-소비-재활용(생태까지)의 지역 전
체 먹거리 체계를 민관이 협력해 계획을 세우
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 푸드플랜이다. 품앗이
마을은 지자체와의 협력해 ‘도시형 민관거버
넌스 로컬푸드’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며 푸
드플랜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자 한
다. 로컬푸드의 효과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친환경
로컬푸드가 지난해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다.
본격화된 영유아 급식사업 덕에 생산자들과
약정재배도 가능하게 되어 지역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의 점심식사를 염려하
던 부모님들은 걱정을 덜게 됐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40(본점)
전화 | 042-716-0029
팩스 | 042-825-8948
이메일 | poomlocalfood@gmail.com
홈페이지 | poommall.com

oo

로컬푸드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생산, 유통, 소비 간에 신뢰를 복원한다.

pp

협동하는 일자리와 서로 돕는 호혜시장

품앗이마을은 ‘어떻게 하면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만들 것인가’하는 고민으로 2012년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시
작됐다. 로컬푸드만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생활현장에서 해결되는 사회
적경제 시장을 만들어보고자 도전했던 것
이다.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전문적인 물
류·유통 기능을 하는 법인이 필요하게 되었
고, 그렇게 출발한 회사가 품앗이로컬푸드주
식회사다. 이 회사는 2014년 12월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 받은 후 15년 5월에는 주식회사
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형태를 전환
하는 흔하지 않은 일을 단행한다. 영리법인
인 주식회사에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
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아직 생소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1
인1표제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협
동조합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수익금의 배
당이 금지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이다. 수익

이 발생하게 되면 전액 지역사회에 기부하거
나 목적인 사업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품
앗이마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직원, 후원
자들이 각각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합의 중요한 판매 정책은 소비
자와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고 직
원들은 조합원 및 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
의 직원 복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품
앗이마을은 설립 초 5~6명에 불과했던 직원
들이 현재 51명으로 늘었고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에는 청년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함께 하고 있다. 로컬푸드 매장 1곳에서 시작
해 지금은 직영매장 4곳에 제휴매장 1곳을
운영 중이다. 또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와
급식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어느덧 8000여 명이 됐다.

품앗이마을이 만들어내는 유통 플랫폼은
한 농민의 생존수단이 된다. 로컬푸드를 기
본으로 한 사회적경제 유통 플랫폼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품앗이마을은 수
많은 생활 속 문제들이 공정한 시장인 사회
적경제 내에서 해결되기를 꿈꾼다. w

성평등 도시 대전

‘두런두런’ 이런 일이

‘여자, 날아오르다’ 토크콘서트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주관한 ‘여자, 날아오르다’ 토크콘서트가 지난 11월 21일 대전서구문화원 6층 대강당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여성단체회원, 전업주부, 워킹맘, 경력단절여성, 솔로직장여성, 여자 대학생 및 고등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일과 가정에 지친 여성들을 위해 치유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시청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박희정 아나운서가 진행자로 나서 권선택 대전시장과의 현장 토크 시간을 가졌다. 현장 토크에서는 현재 대전시가 집중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여성 취·창업, 여성친화기업, 여성친화도시 등 다양한 여성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어서 국악인디밴드 정간의 공연으로 후끈 달궈진 현장 분위기를 이어 여성으로 그리고 사회인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서비스브릿지컨설팅 김현주 대표, 양선화 변호사를 초대해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본인들의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중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주 대표는 ‘헛된 시간은 없다’를 주제로 영업사원에서 시작해서 CS 강사가 되기까지 자신이 가장 잘한 것은 ‘버티기’였으며, 버티면서 배운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을 들려줬다. 양선화 변호사는 상고 출신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 보조에서 6년간의 고시생활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도전기를 들려줬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여성들의 자아발전을 위한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선배의 경험 지침서가 됐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출산과 육아로 지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자리가 됐다.



2016 대전여성 취업·창업박람회

대전지역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2016 대전여성 취업·창업박람회’가 지난 9월 1일 대전시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200개 기업체가 참여했으며 취업을 앞둔 전문계 여고생부터 50~60대 여성들까지 구직자들은 현장면접을 통해 당일 432명이 채용으로 연결됐다. 1층은 취업컨설팅관을, 2층에는 현장면접, 채용게시대를 배치했고, 3층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체인력제도, 창업지원제도 ICT산업 등 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마술쇼, 토크콘서트, 여성 CEO특강으로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전시의 여성취업·창업박람회는 금년 10회째로 명실공히 ‘중부권 최대의 여성전문 취업·창업박람회’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여성친화서포터즈 대구 견학

대전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인 여성친화서포터즈를 모집해 11월까지 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 9월 8일에는 여성친화서포터즈 및 여성단체연합회원 20여 명이 대구 달서구 두류 안전마을과 수성구 수성여성클럽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견학을 통해 서포터즈단의 역량강화와 여성친화도시 체감도 향상을 도모했다. 대전시는 여성친화서포터즈단 운영을 통해 지역여성의 정책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으며,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속 여성친화도시 의제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친화기업과 협약체결

대전시는 지난 10월 25일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폭을 넓히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여성친화기업은 관내 30인 이상 기업 중 여성 근로자가 20%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 수 20인 이상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개선실적과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30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했다. 시는 협약식을 계기로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시민적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기업들은 앞으로도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80개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해 바 있으며 금년에도 15개 기업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최근 지역성을 살린 여성친화적 공간계획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전시와 유성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2월 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유성구는 대전시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여성친화적 공원을 조성했으며, 대전발전연구원(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성구는 여성친화담당 신설, 사업분야별 TF팀 구성, 각계각층 의견수렴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성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이번 지정으로 유성구는 내년 1월 여가부와 협약식을 갖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상호 협력 하에 본격 수행하게 된다. 또한 2021년까지 5년 동안 305억47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총 3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 주류화 제도, 시민이 점검해봤어요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시행해 정책의 성 차별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러한 이상적인 분석평가를 위해서는 성평등 조치사항의 지속적인 환류과정이 필수적이다.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올해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환류과정의 일환으로 '성 주류화 제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2013년·2014년에 작성된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분석했다는 점. 둘째, 특정 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성평등 조치사항 및 사업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수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이행점검은 2013년·2014년에 작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중 성평등 조치사항이 기재된 사업 141건을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 후 증빙자료를 분석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이행 현황을 '전부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수치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니터링은 이행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2014년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사업 중 ①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작성된 사업, ② 성인지 예산서·결산서와 연계되어 수행된 사업, ③ 일반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 ④ 사업수행의 성평등 효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사업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심층 모니터링 대상사업 6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6건은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남부여성가족원 교육운영',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편의시설 설치',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이며, 해당 사업들의 모니터링은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됐는지부터 개선방안 도출까지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모니터단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여성단체 및 대학교, 각 구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등을 통해 추천받아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성 주류화 제도,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후 2인 1조로 각각 2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 지표를 활용해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안까지 제안했다.

모니터링 지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해 다음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상태 점검, 두 번째는 '들어보고' 제안한 결과 보고로 이용자 및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기, 세 번째 실제 모니터링 현장 상태를 볼 수 있는 '사진 첨부',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개선안 제시'다.

지난 11월 30일, 모니터링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중간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모니터링단은 전문가들과 모니터링 방향, 성인지적 정책 개선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8일에는 최종 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모니터단,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성인지적인 정책 제안사항 등의 결과를 공유했다. 전체적인 모니터링 진행과정은 우측과 같다.

2016 성 주류화 제도 모니터링 진행과정

모니터단 모집
10월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및 지표 설정 1차 자문회의
10월 6일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및 지표 설정 2차 자문회의
10월 18일

모니터단 교육
11월 1일

모니터링 실시
11월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중간 결과 발표
11월 30일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최종 결과 발표
12월 8일

6개 대상사업 모니터링 현장 및 성인지적 개선안 주요내용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센터 전경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교통 접근성이 낮아 이용자가 적은 편임

- 거점 센터로서 이용률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를 제안함
-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됨

남부여성가족원 교육운영



1층 로비

다양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도 떨어짐

- 유휴공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함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옥상 가건물에 위치한 여성 숙소

누수로 얼룩진 벽지와 지저분한 침구

- 여성노숙인을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 확충이 요구됨
- 여성노숙인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함

편의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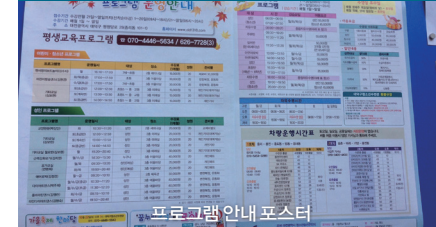


중촌동 진입로 계단 옆 하천 공중화장실

도로와 인도의 높이가 다르고 경사로가 없어 유모차나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움

- 보행 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확충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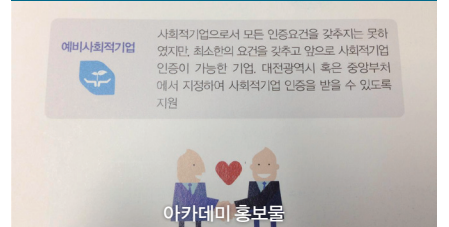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보다 성인 여성 대상 프로그램에 편중됨

-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 남성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함
-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함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홍보물 속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주제를 양복, 넥타이 차림의 전문직 남성으로 표현함

-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넓힐 필요 있음

모니터단은 현장 점검 내용과 그에 따른 다양한 성인지적 개선안을 제안했으며, 그 중 일부는 위와 같다. 추후 이행점검 결과 및 모니터링 현황과 개선안 등은 '2016년 성 주류화 제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운영' 보고서로 발간된다. [W](#)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NEWS

맛있는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젠더 콜로키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 및 가족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제3회 콜로키움이 개최됐으며, 발표된 주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 시우 씨의 '이미, 그러나 아직: 쿼어 장의 형성'과 정의솔 씨의 '유교가족몰락과 쿼어 주민들'였다. 9월 23일에 개최된 제4회 콜로키움에서는 '행복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 가구소득을 사용한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류지아 박사가 발제했다. 제5회 콜로키움은 지난 11월 18일 개최됐다. 제5회 콜로키움 주제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은하 씨의 '미성년 자녀를 가진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예측 요인: 생애과정 관점을 중심으로'였다.

대전·세종 상생발전을 꿈꾸다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세종 지역의 맞춤형 여성 정책 개발을 위해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개최된 제2회 포럼에서는 여성친화도시정책 어젠다 발굴, 가을 문화행사 관련 의견을 들었다. 제3회 포럼은 8월 18일 개최됐으며,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정책간담회 형태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친화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4회 포럼은 8월 26일 '대전 정책엑스포 2016'의 한 세션을 맞아 '평등하고 조화로운 대전·세종 여성의 삶을 희망한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앞으로 본 포럼은 지역 맞춤형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NEWS

대전 120 콜 센터 운영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대전 120 콜 센터 운영 사업은 지난 11월 22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제11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5년에 해당사업의 컨설팅을 맡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백경미 컨설턴트와 사업 담당자인 대전시 시민봉사와 박두찬 주무관이 팀으로 출전했다. 현장에서 5분간 사례발표 후 심사 및 시상이 이루어졌다. 대전 120 콜 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언어폭력 등 악성 민원 대응 체계와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탁 업체 노동 관리 점검 기준안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운영을 노력해온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2015년 전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는 34,258개이며, 우수사례로 선발된 것은 매우 놀라운 성과이다.

2016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 주류화 포럼



이번 포럼은 안전에 관한 심층적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안을 모색하고, 2017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및 정책 등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 기획됐다. 발제는 대전여성단체연합 임정규 사무처장, 목원대학교 장운정 교수, 전북대학교 심준영 강의전담교수, 대전대학교 박민정 강의전담교수 순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에는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인 김현아 주무관 외 6명이 참여했다.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지난 11월 30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안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성 주류화 포럼을 개최했다.

DAEJEON

기초자치단체 활동 엿보기

동 구 D O N G - G U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동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6일 동구청 12층 공연장에서 2016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며 '동구 여성가족 행복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500여 명의 여성단체 회원들과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단원들은 '함께 만들어가는 동구의 위대한 여정, 여성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도시' 비전을 선포하며 여성이 안전한 동구, 여성이 행복한 동구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외에 어린이집 원아들의 신나는 율동, 여성발전유공자 표창, 열린음악회 등도 함께 열렸다.

아동·여성안전 취약지역 합동순찰



동구는 지는 8월 23일부터 8월 31까지 관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합동순찰 실시하고 지역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동구청이 주관하고 동부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 여성단체협의회, 폭력상담소 등 민·관·경 관계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8회에 걸쳐 관내 취약지역 곳곳에 순찰활동을 전개했다. 합동순찰 활동을 통해 귀갓길 안전사고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치안 불안요소 제거 및 방범시설물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도 청취했다. 동구는 지속적으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워크숍



동구는 지난 11월 30일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경우고려태권도 지광수 관장의 호신술 교육과 대전여성단체연합 임정규 사무처장의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및 서포터즈 참여와 역할'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참석한 단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행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지난해 9월 발족한 동구 서포터즈단은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등 구정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동구는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세부사업 추진, 실무추진단 워크숍 개최 등 여성친화도시 동구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 구 J U N G - G U

제8회 효문화뿌리축제



중구는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중구 효월드

뿌리공원에서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를 체험하는 '제8회 효문화 뿌리축제'를 개최했다. 축제 첫날 문중 조형물 제막식과 함께 문중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전국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마지막 날에는 동을 상징하는 퍼레이드 및 대동제 등 온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 체험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예방 캠페인



중구는 지난 10월 10일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을 맞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 관련시설 종사자, 중구청 공무원, 중부경찰서가 참여한 가운데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중구청에서 출발해 지하상가 내부에서 피켓 가두 캠페인과 홍보 리플렛,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폭력피해 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제17회중구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



중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4일 공주계룡산도자예술훈을 방문해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행사를 가졌다.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살펴보고 도자기를 직접 빚어보며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어 근처 공산성과 석장리 박물관을 함께 탐방하며 우리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고 백제 문화를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서구는 지난 10월 11일 담양에서 서구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해 7개 단체,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여성단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성인지 리더십 교육',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행복한 가족 찾기' 특강을 실시했으며, 이어 사례 중심의 상호토론 시간을 통해 여성리더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고 회원 간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학교로 찾아가는 여성 호신술 교육



서구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관내 4개 중학교 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여성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구 태권도협회 소속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으로, 여학생들이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처 가능한 호신술을 실습함으로써 자기 방어력과 범죄 대처능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폭력예방 통합교육



서구는 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지난 11월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통장, 동 자생단체 회원, 직원, 기간제 근로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유 성 구 Y U S E O N G - G U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유성구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지난 7월 5

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등에 대한 역량교육, 타차기구 현장학습, 구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11월 9일 최종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실시한 구정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총 6건의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모니터링 결과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교육



유성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센터 직능단체회원,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지역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성폭력 추방주간 민·관·경·학 합동캠페인



유성구는 지난 11월 25일 아동과 여성이 성폭력·가정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유성을 만들기 위한 '민·관·경·학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구를 비롯해 유성경찰서, 유성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유성구여성단체협의회, 상대초등학교, 유성중학교, 기타 폭력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성폭력·가정폭력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대 덕 구 D A E D E O K - G U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대덕구는 지난 7월 6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대덕구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유공자 표창과 '여성친화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별강좌도 이어졌으며, 혈당과 혈압 체크 및 나트륨 줄이기 홍보 등 건강상담 코너와 가정폭력 피해사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관도 운영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장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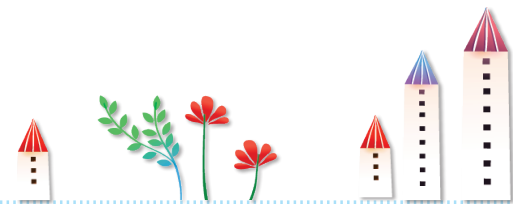


대덕구는 지난 9월 21일 회덕향교에서 대덕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및 다문화가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계층을 위한 전통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열었다. 전통 된장과 간장은 대덕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정월에 만들어 숙성과정을 거친 후 관내 다문화가족과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50가정에 골고루 전달하게 됐다. 여성단체 회원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까지 함께 참여해 전통장 담그기부터 숙성법까지 묻고 알려주는 등 우리 고유의 맛과 전통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됐다.

여성친화도시 이해 및 성폭력 예방교육



대덕구는 지난 11월 8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원년을 맞아 주민 70여 명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이해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리더와 구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 기념 및 대덕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성폭력 예방 인식 고양과 지역안전 파수꾼으로의 동기부여 효과를 높였다. 구 관계자는 내년에는 보다 많은 주민들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계 활동 이모 저모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제28회 대전광역시 여성대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7월 4일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가족행복 활짝, 대전경제 쑥쑥'을 주제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5개 구청장, 여성 지도자,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과 여성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연출했으며 여성친화도시 실천결의문을 낭독해 '여성친화 허브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 트인 세상, I LOVE KOREA!! 국민포럼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24일, 대전서구 문화원 6층 공연장에서 국민

영화 프로젝트 '트인 세상, I LOVE KOREA!!'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국가보훈처가 후원한 국민포럼은 대전의 여성리더와 일반시민, 각계각층의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퍼포먼스,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와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 트인 세상 I LOVE KOREA!! 확산캠페인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40여 명의 홍보단을 구성해 지난 9월 1일 충남대학교 일대에서 '트인 세상, I LOVE KOREA!! 모두가 So~통(通)입니다'라는 주제로 나라사랑 확산 유도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10월 7일 대전역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념, 계층, 세대, 성별, 빈부 등의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나라사랑의 길에 온 국민이 뭉쳐자라는 실천 약속 서명과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공감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 대전시민 걷기한마당 '성평등 한걸음, 더!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7월 9일 엑스포 시민공원과 한밭수목원 일원에서 시민 10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 한 걸음 더- 대전시민 걷기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안전문제를 주제로 한 '안전사회를 위한 포스트잇 액션: 우리동네 숨은 불안 찾기',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나의 양성평등 지수는?', '평등 플래쉬 인증샷 놀이', 평송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됐다.

+ 대전시 여성친화서포터즈 2기와 유성구 주민참여단 견학모니터링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여성친화서포터즈와 주민참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견학모니

터링을 실시했다. 지난 9월 8일에는 대전시 여성친화서포터즈 2기가 대구의 두류안전마을과 수성여성클럽을, 9월 21일에는 유성구 주민참여단이 익산 여성회관과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유성구 주민참여단은 11월 9일에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구청 담당자들과 함께 개선될 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 여성친화 서포터즈 2기는 11월 15일 북카페에서 시와 구의 여성친화도시 담당자들과 함께 발표회를 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 고령화 사회 대비, 지역여성 타운홀미팅과 거버넌스 간담회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0월 12일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 여성의 어젠다 발굴과

정책변화 반영 촉구, 민간영역의 역할 모색을 위해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또한 11월 4일에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발굴된 결과 공유 및 점검하는 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영민 대전여성단체연합 교육조직위원장, 김지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경희 해피존 요양원 원장, 김지영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역할 모색과 정책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

●대전YWCA

+ 제21회 대전여성포럼



대전YWCA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7월 7일 대전YWCA 4층 강당에서 전문가, 관련 단체 실무자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의

생애주기별 역할 변화와 지원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제21회 대전여성포럼을 개최했다. 정혜원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정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강은혜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채계순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권춘식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전YWCA가 10대부터 60대까지 여성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 결혼이주여성 구인·구직만남의 날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1월 8일 결혼이주여성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에게는 면접의 기회와 취업정보 제공을, 구인업체에게는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가 주어진 자리였다. 부대행사로 직업상담, 이력서 코칭 및 일대일 취업컨설팅, 리본공예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수료식 및 연말 발표회



대전YWCA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8일 한국어 수료식 및 연말 발

표회를 진행했다. 한 해 동안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 공연을 진행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다문화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연말 발표회에서는 연극공연 이외에도 율동과 수기발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시낭송도 함께 열려 그동안 배운 한국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

+ 에너지 절약·절전 시범 캠페인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7월 18일 대전광역시시청 네거리에서 시회장단 및 남녀새마을지도



자 200여 명이 참여해 하절기 에너지 절약·절전 시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무더위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력난 예방을 위해 실시한 범국민 에너지 절약·절전 실천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 '건강한 가정, 희망찬 대한민국' 가족사랑 가정교육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월 3일 2016 행정자치부 국비공모사업 '건강한 가정, 희망찬 대한민국' 가족사랑 가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

육은 입교식, 부모교육, 학생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모범가정상, 모범청소년상 시상도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화목한 가정문화의 필요성 및 공감대 확산으로 사회전반의 가정 문제를 예방, 치료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과 이해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효정신, 밥상머리교육, 나눔실천 등을 통해 윤리의식 강화에 이바지했다.

✦ 캄보디아, 미얀마 새마을 해외 협력 사업



중 구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회원 23명이 참여해 캄보디아 프레네 이후레야 마을에 '생명의 우물' 준공

식을 실시했고, 서구새마을부녀회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회원 13명이 참여해 미얀마 낭쉬우시사다마 마을 13가구에 태양광 전등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지구촌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민간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우호 증진 및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 건설에 일조했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실시했다. 서구청 및 배재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6회의 교육, 5회의 요리 체험, 2회의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구청 직원들과 함께 자율 단속반을 운영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 제27회 소비자 정보전시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는 소비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 갤러리아 타임월드 10층 전시실에서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7회를 맞

는 이번 전시회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해 착한 소비자를 양성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소비자상담사례, 상품전시, 실태조사, 상품 테스트 결과 및 소비자 정보등을 담은 리플렛 및 패널 30여 점을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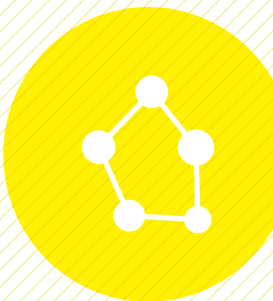
✦ 2016 청소년 소비자 교육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에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2016년 청소년 소비자 교육은 11월 18일 노은고를 시작으로 12월 12일 신탄진고와 명석고까지 모두 17개 학교에서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성년으로서 스스로 소비 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됐다. W

대전 공유네트워크

무엇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을 혼자만의 힘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함께 나누어 사용할 때 개인의 삶은 건강해지고 도시는 창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대전 공유네트워크는 함께 나눠 쓰는 공유활동을 통해 도시재생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며, 대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가 당연한 가장 절실하고도 필요한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공간, 물건 같은 유형의 자산과 신뢰, 협력, 참여, 소통 같은 무형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시민공동체, 그 관계의 그물망이 바로 공유 네트워크 Sharing Network이다.



공유살롱 '공유평TALK'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공유공간 스테디팩토리, 별집, 북카페 이데에서 3번의 만남을 가졌다. '일상에서 공유하기', '내가 공유기업이라면?', '소규모 지식공유 컨퍼런스 LETS*' 등 우리의 일상이 공유와 만났을 때 어떤 변화와 긍정성이 있는지 직접 공유활동을 접하고, 공유 활성화와 관련된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을 개최했다.

*레츠(L.E.T.S) Local Energy Trading System의 약자로 모든 참석자에게서 가르쳐줄 것과 배울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참석자들의 작은 재능이라도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배우고 내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드는 학습방법



공유네트워크 선진지탐방 '도시 시민 공간 탐방'

10월 11일, 대전의 마을활동가 및 청년들과 함께 서울의 여러 공간(플랫폼 창동 61, 비밀기지,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과 활동을 탐방했다. 복합문화공간과 시민이 만들어가는 공간, 지역화폐를 통해 일상 속의 공유와 나눔을 실천하는 선진공동체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시민들의 역량강화, 지역에서의 공유문화 조성·확장을 이끌어냈다.



공유플리마켓

대전예술의전당 원형극장과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지난 10월 9일, 15일, 22일 3일에 걸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유희자원을 공유하고 중고물품을 위탁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공유화폐를 생성하고, 호혜와 나눔의 공유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2016 지식나눔 공유 컨퍼런스 '공공공유 000U'

2016 지식나눔 공유 컨퍼런스 '공공공유 000U'가 지난 10월 29일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식나눔 공유 컨퍼런스 기조발제 및 릴레이 강연, 공유품앗이가게 및 재능나눔 레츠컨퍼런스, 공유나눔체조 등을 진행했다. 공유와 나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인 시민자산을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능나눔과 물품 공유의 장이 됐다. W



회원제 독서클럽 · 작은책방

‘가치읽자 | 유어왓츄리드 You Are What You Read’

사유의 공간에서 공유와의 접점 찾기

『유어왓츄리드』에서 ‘소름책방’을 연다고 했을 때, 스릴러 마니아들의 모임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책을 읽다 깊은 인상을 받아 소름이 돋은 경험을 나누는 이벤트다. 지적 충격으로 살갗이 오그라들고 감성의 자극으로 피부가 발작을 일으킬 정도의 독서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66

보통의 공유서가 개방성을 지향한다면 『가치읽자』는 공유의 밀도에 집중한다. 취향을 유보하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커뮤니티의 점성을 높인다.

99

취향저격, 커뮤니티 책방

책읽기의 끝을 파고드는 『유어왓츄리드』는 회원제 독서클럽이자 작은 책방이다. 오고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외관이 우선 눈에 들어오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서 책이 자존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공간이라면 독서 중에 소름이 돋을 수도 있겠다. 웬지 경건하게 독서에 임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슬로리딩(Slow Reading) 클럽도 운영하나보다. 슬로리딩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책에만 몰입하는 목독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유네트워크 사업에는, ‘가치읽는 책읽기, 함께 하는 책읽기’를 표방하며 『가치읽자』라는 이름으로 참여했다. 『가치읽자』 김송희 대표는 현재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나이 들면 작은 책방을 하고 싶다”고 평상시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때가 예상보다 너무 일찍 왔다.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별집』 선배들의 제안을 받고 덜컥 일을 낸 것이다. 이전에 학교수업을 듣고 오후에 책방 문을 연다.

서가는 두 개의 섹션으로 나뉘는데, 공유서가와 판매용 도서로 채워진 책방 코너다. 어떤 책이든 쉽게 책꽂이를 차지할 수는 없다. 나름대로 책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서 사전에 필터링을 거친 책들만 서가에 꽂는다. 덕분에 양은 많지 않아도 질감이 좋다.

개인의 지식을 공동체의 자원으로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 사이에서, 뒤로는 한빛 아파트 앞으로는 유림공원을 마주하고 있는 『유어왓츄리드』는 지정학적으로 공유서가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적 열기로 가득찬 커뮤니티가 다수 형성되어있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지적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 처음에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를 ‘인문과 과학의 만남’으로 잡았던 것도 지역사회 지식자원을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일단 서가를 분양하려고 했던 것도 대학과 과학특구의 지식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순환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기증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서가를 분양하면 개인이 이용자들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책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서가가 활기를 띠게 된다. 기호에 맞는 서가를 중심으로 소모임을 꾸리면 분양된 서가 수 이상의 독서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일 년에 최소한 5권 정도는 책을 읽자는 취지로 북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구독료를 내면 일정기간동안 알아서 상품을 큐레이팅해서 보내주는 서비스다. 이 역시 지역 전문가들을 활용할 기반이 있기에 구상해 볼 수 있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있는 책!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많다. 주로 재력, 직업, 학벌, 인맥 따위로 판단한다. 최근에는 좋아하는 음식, 즐겨듣는 음악 같은 취향이 판단 기준으로 대세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만든다는 것은 섬세하고 공정한 기준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매우 정치적인 잣대다. 어떤 점에서는 클래스를 나누는 위험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당신이 읽는 책이 곧 당신이다’라는 명제를 이름표로 달고 있는 『유어왓츄리드』는 ‘차별 없는 지식’의 공유보다는 ‘내밀한 취향’의 공유 쪽에 가깝다.

다만 ‘공유’에 대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개인의 취향에 대한 유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밀어낼 일은 아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다수의 욕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속가능한 공유의 걸림돌이 되는 억압이다. 공유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어서 선택하고 몰입할 자유도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W](#)



대표 김송희 근거지 유성구 어은동 공유활동 공유서가 분양, 북커뮤니티 활성화, 도서 큐레이팅, 그 밖에 온갖 종류의 책 읽기 SNS www.facebook.com/YouAreWhatYouRead1979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영화와 역사 속 여성 과학자들

글 · 김형석_과학스토리콘텐츠 SCOOP 대표

2015년 개봉한 『마션』에서 주인공 마크 와트니 못지않게 눈길을 끈 인물은 화성 탐사선 '아레스3'의 대장이자 여성 과학자였던 멜리사 루이스였다. 다른 대원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루이스 대장은 와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그래서 와트니가 아직도 화성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주저 없이 목숨을 건 구조에 나선다. 디스코 음악만 좋아하는(덕분에 와트니는 그녀의 소지품에서 찾은 디스코만 화성에서 2년 내내 들어야 했다) 취향을 제외하면, 그녀는 누구나 '모시고' 싶은 리더임이 분명하다.



실험실에서의 퀴리 부부
(사진_위키백과)

WOMAN SCIENTIST



영화 『인터스텔라』의 머피는 인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중력방정식을 풀어낸다.

♂♂

영화 조연이지만 주인공 구조·인류 구원에 결정적 기여
현실에서도 상대성 이론·DNA 구조 규명의 숨은 공로자

♀♀

2014년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인류는 종말의 위기에 처한다. 지구와 인류의 종말의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인류가 살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까지 인류를 보낼 수 있는 중력 방정식을 푸는 일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 쿠퍼의 딸인 머피(마션의 루이스, 인터스텔라의 머피를 모두 멜리사 차스테인이 연기했다) 박사다. 먼 미래에서 아버지가 보낸 모스 신호에서 힌트를 얻는 그녀는 마침내 중력방정식을 풀고, 종이를 뿌리며 외친다. “유레카!”

영화 『마션』에서 멜리사 루이스 대장(왼쪽 두 번째)은 주저 없이 대원을 구조하려 되돌아간다.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아내였던 밀레바 마리치
(사진_위키백과)

“내가 하겠다” 불굴의 의지로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고립됐던 와트니를 구조하고, 『인터스텔라』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 장본인은 모두 ‘여성’ 과학자였다. 영화에서는 비록 조연이었지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굴의 투혼, 가족과 인류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었다. 그들은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멜리사나 머피와 같은 여성 과학자를 만날 수 있다. 불굴의 투혼과 의지로, 편견을 극복하고, 냉소와 조롱을 이겨내며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 물론 주인공도 있고 조연으로 끝난 인물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그들의 업적이 사라지거나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빛, 나의 태양! 내 손을 잡아주던 당신의 작은 손이 그림고, 나를 따뜻

하게 감싸주던 가녀린 두 팔이 그림습니다. 그러나 제일 그리운 것은 당신의 타는 듯한 입술입니다.” 이렇게 절절하면서도 낮 간지러운 연서(戀書)를 쓴 장본인은 시인이거나 예술가가 아니었다. 인류역사상 최고의 두뇌이자 천재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이다. 도대체 상대가 누구길래 숨겨진 우주와 행성의 법칙을 밝히고, 시간과 공간의 상관관계를 공식으로 풀어낸 차가운 두뇌를 뜨거운 심장으로 녹인 것일까?

아인슈타인에 가려 우리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밀레바 마리치(1875~1948)가 주인공이다. 세르비아계 천재 소녀였던 그녀는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에서 아인슈타인을 운명처럼 만난다. 그녀의 과학적 재능에 관해 지금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밀레바 마리치는 취리히공과대학 역사상 다섯 번째 여학생이었고, 당시 동기생 가운데 유일한 여학생이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여성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그의 과학적 재능에 의심을 품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더구나 그녀는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

아인슈타인이 장애를 가진 세르비아계 여성에 반한 것은 무엇보다 그녀의 풍부한 지식과 수학적 재능 때문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들은 1903년 결혼했고, 결혼 직후 2년 동안 ‘특수상대성이론’ 등 5편의 논문을 쏟아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창조하고 이룩한 모든 것은 밀레바 덕분입니다. 그녀는 내게 천재적인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제 작품은 완성은커녕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 밀레바는 특수상대성이론 논문을 검토해 7곳의 오류를 수정했고, 그 논문에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적 특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특히 광양자 이론은 분명 공동연구의 결과였다. 하지만 모든 연구는 아인슈타인의 이름으로만 발표됐다.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은 상금 전액을 밀레바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공동연구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는지, 위자료 차원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영화『고스트버스터즈』의 주인공은 모두 여성 과학자다.



노벨과학상과 노벨화학상을 받은 마리 퀴리(사진_위키백과)

연구 도둑맞고 편견 시달렸지만 그들은 과학속 '주인공'

밀레바가 저평가된 여성 과학자였다면, 로절린드 프랭클린(1920~1958)은 남자들에게 연구업적을 뺏긴 불행한 여성 과학자였다. DNA의 비밀을 밝힌 것은 20세기 생물학은 물론 과학 전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DNA가 이중나선형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DNA가 어떤 방식을 통해 복제되고 후손에게 전달되는지 알게 됐고, 이러한 업적에는 항상 왓슨과 크릭의 이름이 따라붙는다. DNA 구조 규명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X선 회절 사진이었는데 여기에 공로가 큰 월킨스는 이들과 함께 196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는다.

하지만 훗날 DNA 구조의 X선 회절 실험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화학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프랭클린은 미세한 DNA 가닥을 묶어 그것을 X선으로 촬영하는 방법을 통해 DNA에 두 가지 형태(마른 표본·젖은 표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연구실에 있던 월킨스는 1952년 프랭클린이 찍은 X선 사진을 몰래 들고 나와 왓슨과 크릭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왓슨과 크릭은 1953년 DNA 이중나

선 구조에 관한 논문을 네이처에 게재한다. 프랭클린은 논문의 사진을 보자마자 자신이 찍은 사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녀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어쩌면 사실이 밝혀지고 노벨상의 주인공은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소암에 걸린 그녀는 2년 동안의 투병 끝에 1958년 눈을 감는다.

마리 퀴리(1867~1934)는 이들에 비하면 훨씬 행복한 과학자였다.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을 최초로 발견한 과학자이자 처음으로 노벨상을 두 번 받았다. 하지만 밀레바처럼 조연으로 끝나거나 프랭클린처럼 연구 업적을 빼앗기는 않았더라도 마리 퀴리



로절린드 프랭클린(사진_네이버 지식백과)

역시 과학계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남편이 마차에 치여 죽는 슬픔을 겪은 퀴리는 동료 폴 랑주뱅과 사랑에 빠진다. 문제는 랑주뱅에게 아내와 네 아이가 있었는데는 사실이다. 호사와와 언론은 '소르본 스캔들'이라고 부르며 퀴리를 조롱하고 심지어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았다.

1903년 남편과 함께 노벨물리학상(이때도 노벨위원회는 남편에게만 노벨상을 주려고 했다)을 받은 데 이어 1911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퀴리는 노벨위원회로부터 노벨상 수상을 거절해줬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받는다. 퀴리는 이렇게 답장을 보낸다. "노벨상은 폴로늄과 라듐 발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저의 연구와 사생활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 사생활에 대한 중상모략과 명예훼손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 수 없습니다." 결국 노벨화학상까지 받은 퀴리는 1934년 실험 과정에서 너무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 탓인지 백혈병으로 사망한다.

얼마 전 리메이크 개봉작이었던 『고스트버스터즈』에서는 원작의 남성 대신 3명의 여성 과학자가 주인공이다. 『마션』의 루이스나 『인터스텔라』의 머피처럼 뛰어난 않지만,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 만든 기술과 장비로 도시를 덮친 유령을 퇴치한다. 무엇보다 루이스나 머피와 달리 그들은 영화의 주인공이다.

조연이든, 주인공이든 밀레바와 프랭클린, 그리고 퀴리의 삶의 업적을 과학사는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중력 방정식의 해법을 찾은 머피가 외쳤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이 목표로 하던 연구 성과를 얻은 뒤 '유레카'를 외쳤을 것이다. 분명한 점은 그런 조연, 혹은 주인공이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그들을 '여성' 과학자라 부르지 말고, 그냥 '과학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W**

건강 미인의 완성은 자세



글 · 양대림_(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광역시회장

오늘날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성형과 다이어트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 뒤에는 엄청난 신체적 부작용과 고통도 따른다. 이런 위험을 감수해가며 미인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얼굴은 예쁜데 등이 굽었다면 어떨까? 또는 몸매는 날씬한데 목이 빠들어지고 골반은 틀어져서 통증에 시달리며 살아야 된다면 행복할까?

예쁜 얼굴이 아니어도 매력적인 얼굴에 호감이 갈 수 있고, 날씬하진 않아도 반듯한 체형의 건강미를 통해 매력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 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벗어나 바른 체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바른 자세란? A번 그림과 같이 측면에서 봤을 때 귓볼, 어깨 끝의 중앙, 흉곽의 중앙, 대전자(대퇴골 측면돌기) 중앙, 무릎 중앙 바로 앞, 발목 바로 앞 부위를 통과하는 일직선이다. 이러한 자세는 보기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직결된다. 바른 자세는 목과 어깨의 피로를 없애주고, 식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뇌세포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살다 보면 부상을 입게 되어 신체 정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신체 불균형은 각종 디스크, 퇴행성 관절, 오십견 등의 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틀어진 체형은 B(Kyphosis-back), C(Flat-back), D(Sway-back)번 그림과 같이 정상적이지 못한 척추 정렬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자세로 신체가 변해가도, 단지 빠르고 근육이 뭉쳤다고 인지할 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경추에서 흔히 일어나는 편위는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턱이 앞으로 튀어 나오면서 귓볼은 경추선과 어깨 보다 앞으로 나가 뒷목과 어깨에서부터 등까지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비정상적 일자목, 거북목(turtle neck) 자세가 만들어진다.



Flat-back 교정운동법

Sway-back 교정운동법

김영란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글 · 임사라_법률사무소 열음 변호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해까지 재임한 대법관은 142명이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대법관은 누구일까? 바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다. 김영란법, 영란세트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부터 식당 메뉴까지 등장할 정도로 전 국민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었다. 바로 ‘김영란법’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법 이전에 부정한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처벌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성,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는데, 이를 모두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러한 이유로 일명 ‘벤츠 여검사’ 등 스폰서 공직자가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자, 기존 법률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 비리를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영란법 6가지 가이드라인

- 1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및 그들의 배우자 등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유치원 교사도 유아교육법상 교직원이므로 적용대상이며,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기간제 교사도 포함된다. 개인병원 의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인 의사는 법 적용대상이다.
- 2 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는 어떻게 될까? 공직자 자신이 몰랐거나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내용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 3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이상 등 처벌 대상을 기억할 것. 처벌 규정을 보면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과태료를 물린다. 즉,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제한이 있다.
- 4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5-10 기준은 김영란법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 9가지*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위

에 언급한 대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이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3-5-10 기준을 초과한 금품 가액의 합계가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 9가지

- ①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이하, ② 상관이 지급하는 위로·격려·포상금, ③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④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리 행사, ⑤ 친족이 제공하는 경우, ⑥ 친목회 등의 내부 기준 및 친분관계자의 구호, ⑦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⑧ 기념품·홍보용품 및 경연·추첨을 통한 상품, ⑨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서 허용

⑤ 처벌에 관한 직무 관련성 기준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기존 법원에서 판단한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 범위는 매우 넓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

⑥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 청탁은 업무처리와 관련한 인·허가 처리, 처벌 감경이나 면제, 인사 개입, 보조금 등 지원 개입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 당사자는 거절하고 같은 부정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영란법 실제 적용 해보기

사례 A 당장 결혼식에 갈 때부터 혼주인 지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예컨대 공무원인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간 A씨가 초등학교 동창회 회칙에 규정된 경조사비 1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 김영란법이 정한 경조사비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지만, 동창회 회칙에 규정된 100만원은 예외다. 그러나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무원과 금품을 준 A씨 모두 형사처벌된다.

사례 B 요즘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이 유치원 선생님에게 스마트폰으로 기프트콘을 주는 경우가 많다. 사립 유치원 선생님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해당하고 이는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여부와 상관없다. 따라서 유치원 선생님에게 무심코 '고가'의 기프트콘을 보내거나 식사를 대접할 경우 처벌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기프트콘의 가액이 선물 상한액인 5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고·의례의 목적 내로 인정될 경우에는 기프트콘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사례 C 공무원 친구와의 만남은 부담될 수 있다. 대기업 회사원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대기업 직원 C씨는 고향 친구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밥값은 60만원이었다. 이후 장소를 옮겨 2차를 갔다. 술값으로 300만원이 나왔다. 모든 비용을 A씨가 계산했다면 어떨까. B씨와 C씨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다. 저녁만 먹었다고 가정하면 업무 관련성이 없고 1회 100만원 이하인 60만원을 계산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2차의 주류 비용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달라진다. 여러 명이 식사를 한 경우 총 금액을 인원수대로 나눠 1인당 비용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신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 장소를 옮기지 않고 식사와 술을 했다면 당연히 합쳐 계산한다. 또 이번 사례처럼 식사 후 따로 술을 마셨다고 해도 시간과 장소 상으로 근접성이 있는 경우는 합산한다. 식사와 주류 비용을 합쳐 1회로 봐 계산한 비용은 총 360만원. 1명당 120만원의 비용이 돼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3명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례 D 사립학교 교장에게 외국인 교사가 계속근무를 부탁하면서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준 경우는 어떨까.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대상이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만큼 교장과 외국인 교사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다보니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움츠러들어 약속 자체가 없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같이 김영란법은 정을 나누는 문화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값비싼 금품 등을 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이다. 친구가 공무원, 기자, 교사, 교수인 경우 함께 식사하려면 3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이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순수한 지인이나 친구의 경우에는 3만원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100만 원을 넘지만 않는다면 푸짐하게 먹고 선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w

건조한 겨울, 보습제 끝판왕 코코넛 만능크림

글 · 사진 · 김영화_핸드크라프트 작가 · 現 대전시민대학 공예 · 미술 아카데미강사 · 소소한 일상에 작은 감성 찾기 '보나' 대표

최근 코코넛 효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코넛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코코넛 오일의 다양한 활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겨울 칼바람으로부터 내 피부를 지켜줄 '코코넛 만능크림' 만드는 법이 공개돼 화제다.



COCONUT CREAM

재료와 도구

정제수 60g, 글리세린 7g, 올리브 유화왁스 6g, 코코넛 오일 23g, 나트로틱스 2g, 유리 비커, 전자저울, 온도계, 실리콘 주걱, 핫플레이트 등

만드는 순서

- ① 모든 용기와 도구는 알코올 이용해 소독한 후, 유리 비커에 정제수를 계량한다.
- ② 또 다른 유리 비커에는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유화왁스를 계량한다.
- ③ 정제수를 계량한 유리 비커와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유화왁스를 계량한 유리 비커를 중탕해 65~70도 사이가 될 때까지 온도를 올려준다.
- ④ 정제수가 담긴 유리 비커를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유화왁스를 계량한 유리 비커로 소량씩 부어 준 다음 실리콘 주걱을 이용해 잘 섞어준다.
- ⑤ 점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온도가 약 40도 정도 내려가면 글리세린과 나트로틱스를 첨가한 후 잘 섞어준다.
- ⑥ 적당한 크림 농도가 되면 소독한 용기에 담는다.

COCONUT CREAM Making Tip

- 천연화장품의 경우 냉장보관 3개월을 권장한다.
- 올리브 유화왁스는 물과 기름이 섞이도록 도와주는 유화제 역할을 한다.
- 글리세린은 피부보습에 도움을 주고, 나트로틱스는 천연방부 역할을 하는 재료이다.



대전문화재단 이춘아 대표이사 “대중화된 생활형 문화예술의 시대 열고 싶어”



지난 9월 20일 대전문화재단의 새 얼굴로 이춘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문화재단은 공공성, 사회성이 담보되어야함은 물론 전문성을 요구받는 기관”이라고 하면서 “제가 할 역할이 영화감독이라면 문화재단이라는 공적기구를 움직여나갈 직원들은 배우”이고 “직원들의 정체성과 일치감, 개인적 성취감을 높여나가면서 재단의 목표를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Q.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꿈 많던 여고생 시절, 오태석의 『태』라는 연극을 보고 서울로의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 이유는 보고 싶은 연극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연극을 볼 기회는 많지 않았고, 사회적 불평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문화예술을 멀리하게 됐다. 그러다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일할 때 여성문화연구에 참여하면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1997년 한국문화복지협의회로 이직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와 문화교육을 접했다.

〇〇

제가 할 역할이
영화감독이라면 문화재단이라는
공적기구를 움직여나갈
직원들은 배우입니다.

저는 직원들의 정체성과
일치감, 개인적 성취감을
높여나가면서 재단의 목표를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〇〇

Q.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2001년 서울생활을 접고 대전으로 왔고, 5월 처음으로 시도된 대전문화유산해설사에 지원하면서 대전이라는 지역과 지역문화를 이해하게 됐다. 이때의 인연으로 함께 공부했던 이들과 2003년 1월 ‘한밭문화마당’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이후 2004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으로 4년간 일 하게 됐다. 유성문화원에서 일하면서 지역을 더 깊게 이해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2009년에 한밭문화마당으로 돌아와 지역문화 네트워크 및 교육 사업을 이어갔다.

Q. 한밭문화마당의 특징은

한밭문화마당은 문화 해설을 넘어서 대전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자신이 딛고 있는 땅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무국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해 순환 형식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Q. 문화예술 외에 다른 일을 해본 경험은

유성문화원에 있을 때 ‘가자 유성농장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기억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이 그냥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텃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Q. 여성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의 실태와
여건은**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여성들의 문화활동이 늘어나면 향후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문화도 폭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대한 것만큼 두 축이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문화활동 영역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여 년 사이에 상당히 높아졌고, 이런 꾸준한 양적 증가는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까지 이어질 것이다.

**Q. 대전을 대표하는 여성 문화예술인을 꼽으
라면**

성평등적 관점을 기릴 수 있는 분으로 3백년 전 홍성에서 대전으로 시집왔던 ‘김호연재’ 시인이 있다. 김호연재의 삶과 시는 여전히 유효한 여성문화이며, 성평등적 가치를 담고 있어서 대전여성상을 ‘김호연재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Q. 가족친화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것은
가족친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기획자나 강사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모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Q. 대전문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가할 방향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전문화재단은 기금 지원 배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분의 원칙을 지키고, 문화예술적 가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예술의 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 모여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와 협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문화예술은 엘리트 계층만을 위한 향유물이 아니다. 집 앞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대중화된 ‘생활형 문화예술의 시대’를 열고 싶다. [W](#)



이춘아 대표이사

1983 - 199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1997 - 1999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연구실장
2004 - 2008 대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2009 - 2016 한밭문화마당 대표
2016. 9 - 현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아릿한 역사가 숨쉬는 곳

소제동 철도관사촌 ‘솔랑시울길’을 걷다

글·사진·조강숙_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기자

호젓한 평일 오후, 비마져 내려 다니는 이 하나 없는 길.
그러나 골목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고, 담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낮은 지붕 아래 행복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동네가 있다. 우리나라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서 대전 동구 소제동에는 ‘솔랑시울길’이라는 예쁜 이름이
붙었다.

대전역 철로 동쪽 뒤편에서 계룡공업고등학교 일
대, 대동천에 이르는 지역, 소제동 일부의 길이다.
거느릴 술(率)자와 밝을 랑(朗)자를 쓴 술랑산의
가장자리 길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일 것 같다.
마음씨 고운 부잣집 며느리가 스님의 도움으로
홍수를 피해 술랑산으로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보
는 바람에 바위로 변했다는 ‘며느리바위 전설’, 가
난한 과부의 아들 삼형제가 이 산에서 땃집을 짓
고 글을 읽어 대성했다는 ‘북조리 보문산 전설’ 등
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마을이다.

소제동이라는 이름은 자연부락 ‘소제리’와 지
금은 매립돼 사라진 ‘소제호(蘇堤湖)’라는 큰 연
못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언제부터 소제호
가 있었는지 전해지지는 않지만, 일제가 대전에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면서, 1907년 소제동 뒤편
에 ‘대전신궁(大田神宮)’을 세우고, 대규모 치수
공사를 위해 1927년에는 소제호를 메워버렸다.
그 때 술랑산을 깎아 매립토로 사용했다고 한다.
대신 그 한 가운데에 생활 하수천인 대동천이 흐
르도록 수로변경공사를 하고 도로(현 계족로)를
내어 우암고택과 소제마을을 고립시켜 놓았다.



① 솔랑시울길 벽화
② 관사42호 소제창작촌
③ 대창이용원

〰

한 사람 지나기도 버거운
좁은 골목 담장에는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벽화들도 있고,
계절에 따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가 담장 밖으로
휘어져 넘어오기도 하며,
담장 아래 색깔 고운
꽃화분들이 웅기종기
놓이기도 한다.

〰

일제침략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

일제는 그렇게 역사문화의 혈을 끊고 식민지 도시화를 추진, 대전역을 중심으로 철
도원과 철도 종사자들이 들어오면서 전국 최대의 관사촌이 형성됐다. 대전역전시장
자리에 남관사촌이, 역사 북서쪽에는 북관사촌을 비롯해 관사가 100호에 이를 정도
로 대전에서 제일 큰 동네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런 역사를 알 수 있는 흔적으
로 대전역 동광장 쪽으로 나가면 주차장 담장 너머 대전 등록문화재 제168호로 지정
된 ‘구철도청대전지역사무소 보급창고’가 있다. 창고로 쓰였던 만큼 특별한 기교나
장식은 없지만, 현존하는 근대 목조건축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번성했던 철도관사촌은 고속도로망의 확충과 승용차 보급, 도시개발에서의
소외 등의 원인으로 급격히 쇠락했다. 현재는 소제동 동(東)관사촌이었던 곳에 40여 채
만 남아있다. 그나마 걸로 보서는 옛날에 관사였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지붕
높이에 비해 담장이 높아 잘 알 수 없지만 ‘—자형’과 ‘ㄱ자형’ 구조로, 검은색 기와를 얹
은 지붕은 전통한옥과는 확연히 달라 보이는 일본식 집들이다. 군대군대 주황색, 파란
색 기와지붕을 인 집들도 있다. 상당수의 집들은 허물어지고 방치된 채 사람이 살지 않
는 듯 보인다. 42호 관사만이 현재 문화예술 창작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작업실로 활용
되고 있다. 들어다 볼 수는 없지만 일본식 가옥구조가 잘 보존된 관사도 있다.

옛날 모습을 간직해 더 정감 있는 길

솔랑시울길은 무척 오래돼 무너지기 일보직전의 가옥들과 제법 넓은 양옥들을 함께
품으며, 좁고 구불구불하거나 꽤 곧고 널찍한 골목길들이 얹혀있다. 옛날에는 꽤나 세
련되었을 이름의 미용실, 60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는 ‘대창이용원’, 오래 전 이름이 바
뀌었지만 초창기 로고와 상호를 그대로 간판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대리점이 있다.
폐업한지 오래 된 점포 간판들은 부서지고 퇴색되었고, 고물상으로 불리는 자원재생
센터들이 많이 들어섰다. 또 희고 붉은 깃발을 단 점집들이 유난히 많다. 어지러운 전
선줄들을 걸치고 있는 나무전봇대는 어린 시절의 집앞 골목길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쇠퇴한 모습이 역력한 소제동이지만, 한 사람 지나기도 버거운 좁은 골목
담장에는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벽화들도 있고, 계절에 따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가 담장 밖으로 휘어져 넘어오기도 하며, 담장 아래 색깔 고운 꽃화분들
이 웅기종기 놓이기도 한다. 담쟁이덩굴만이 여전한 주인 떠난 담벼락도 만나고, 반
쯤은 부서진 집 돌계단 옆으로 들국화가 여전히 피어나고, 골목길에서 만난 돌덩이
하나에도 오랜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자그마한 커피숍에서 풍기는 커피향이 코
끝을 스친다.





①솔랑시울길
②소호현
③골목
④커피숍 커피아노

대전무형문화재 기능장의 메카 ‘대전전통나래관’

2014년,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시설인 '대전 전통나래관'이 개관되면서 소재동 지역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문화예술이 동네에 스며 들고 있다고 해야 할까. 전시실에서는 설경, 불상 조각장, 소목장, 송순주, 연안씨자 각색편, 단청 장, 악기장, 초고장 등 지역 주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의 작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타지역과의 무형문화재 교류전'이라든가, 전통예술 공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근처에는 소호현(蘇湖軒)이라는, 오픈스튜디오 형태로 가끔 전시회가 열리는 공간도 생겼다.

전통나래관에서 사방으로 내려다본 소재동 풍경은 코레일 본사 쌍둥이 빌딩, 고층 아파트와 함께 검정 기와와 원색의 기와지붕,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이마를 맞대고 있는 사이로 키 큰 나무들로 인해 더 좁아 보이는 골목길이 정감 있게 다가오기도 한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시대가 교묘한 조화를 이룬다.

전통나래관에서본
도시철도공사와 보급창고



전반적으로 오래된 가옥들이 밀집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잘 정비된 대동천변으로는 산책길과 자전거길이 마련돼 있다. 운동 삼아 걷는 부부의 모습, 자전거를 타는 젊은이, 천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무척 한가롭다. 성남동 방향으로 놓인 가제교(佳堤橋) 바로 밑에는 징검다리가 나란히 있어, 가제교 위를 장난치며 뛰어 건너는 아이들과 굳이 편안한 다리를 두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어르신의 모습이 정겹다. 전통나래관 뒤 대동천을 가로지른 철갑교 끝자락에는 성남동에 있던 것을 옮겨온 '소재동 할아버지 할머니 장승' 등 소소한 볼거리도 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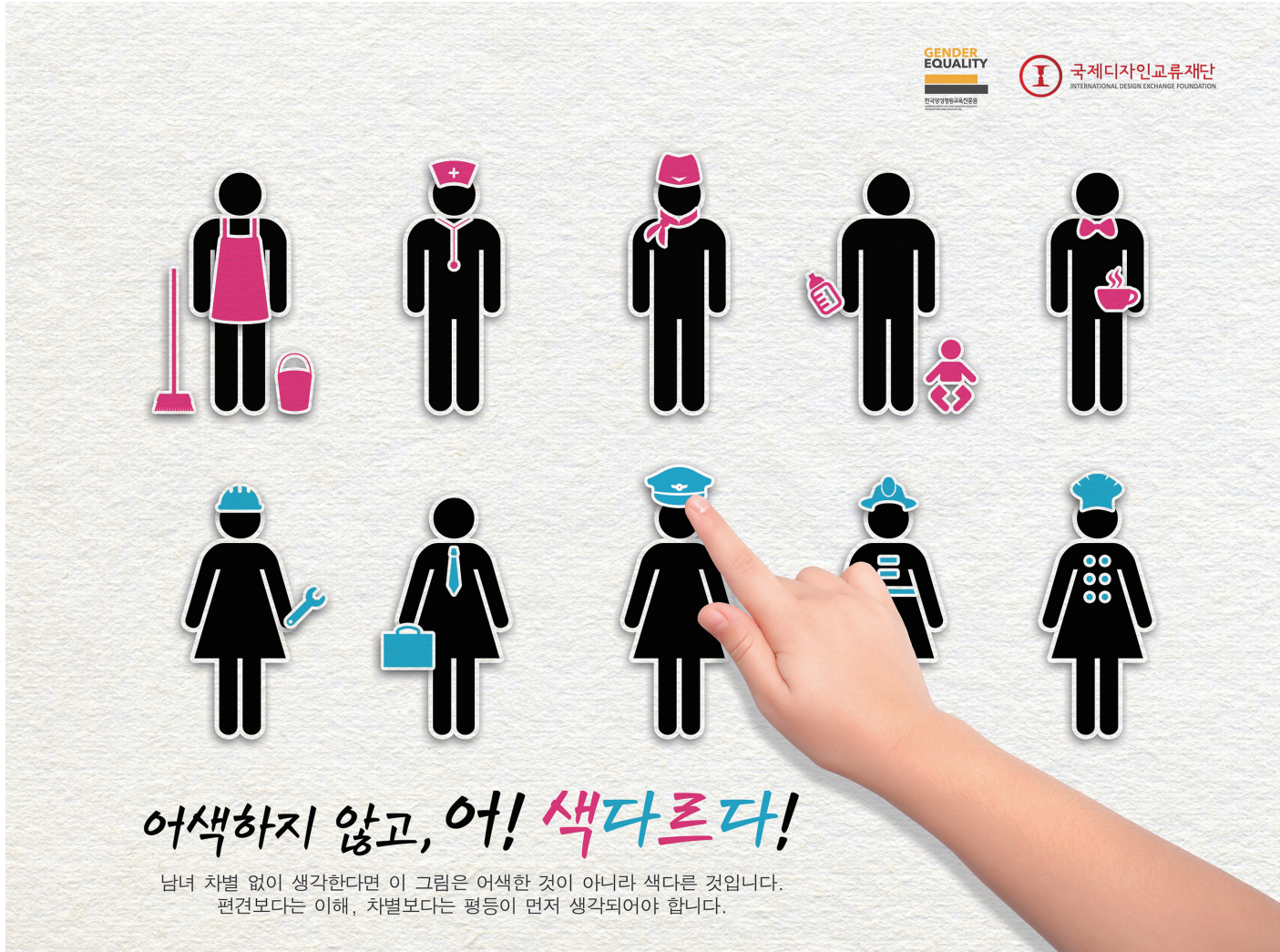
이 마을에 대해 대전시민들은 향수가 있기 때문일까. 지난 10월 21~22일에는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솔랑시울길'이라는 음악극이 공연되기도 했다. 공연을 소개하는 글을 보자.

그곳에 가면 어릴 적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지나간 바람을 만질 수 있다. 그곳에 가면 흘러간 풍경을 담을 수 있다.
'솔랑시울길'은 엄마의 품 같은 곳이다. 유년의 기억을 포근히 품고 있는 곳이다. 넓고 넉넉하긴 해도 입으면 한뼘이 편안한 옷 같은 곳이다.

대전예술의 전당 홈페이지_ '솔랑시울길' 공연소개 글

그렇다. 잘 조성된 쾌적하고 화려한 도시의 모습도 좋지만, 늙으신 부모님이 뛰어나와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삶의 고단함을 잊고 돌아가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 바로 소재동 솔랑시울길이다. [W](#)

전통나래관과
벽화담장



2016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일반부 대상
어색하지 않고, 어! 색다르다!_이현주, 김윤성

남녀 직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
남녀가 서로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모습에 어색해 말고 색다른 모습으로 인식하자는 것을 표현함.